

바이든 달래기에도...이스라엘 총리 '라파 공격' 고수

가자전쟁 불협화음 속 바이든-네타냐후 한달만에 통화...美 일각 '총리 교체론' 놓고 공방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그간 대립각을 세웠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입지를 흔들려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은 누그러진 입장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정계 일각에서 제기된 네타냐후 교체론에 동조했다가 네타냐후 총리의 불만 토로에 이같이 분위기가 수습을 시도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는 19일(현지시간)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지난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 정계의 이스라엘 총리 교체론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14일 조기 총선으로 네타냐후 내각을 해산하고 이스라엘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이어 이틀날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그는 좋은 연설을 했다. 많은 미국인이 공유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슈머 원내대표에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직접 거론하며 항의했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약 한달 만에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이 이스라엘 정치에 간섭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의 기반을 약화하려 시도하고 있지 않으며 이스라엘 내정에 개입할 의향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입장에는 제동을 걸어왔다.

이달 초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야권 지도자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DC를 방문한 것이나, 최근 공개된 미 정보기관 보고서에 네타냐후 정권의 정치적 미래가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뜩이나 네타냐후 총리는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막지 못해 약 1200명의 자국민과 외국인이 숨지고 250여명이 납치되는 참사가 벌어진 이후 하야 압박을 받아왔다.

최근 공개된 이스라엘 3대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는 전쟁이 끝나는 대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간츠 전 장관에게 패해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 까닭에 네타냐후 총리 측은 조기 총선 등을 거론하는 미국 정계의 움직임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이스라엘

은 바나나 공화국이 아니다"라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바나나 공화국은 한정된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며 정치적으로 불안정해 국제자본이나 강대국에 휘둘리는 국가들을 일컫는 용어다.

하지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사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정치에 대해 말하는 만큼 많은 걸 하지는 않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미국 국내정치에 개입하려 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짚는 모습을 보였다고 약시오스는 전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이틀날인 19일 크네세트(의회) 외교국방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마스 소탕을 위해선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의 지상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입 필요성에 대해 미국과 의견충돌이 있었다면서도 "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에서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라파에서 하마스 부대를 제거하겠다는 결심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구호물품이 유입되는 통로이자 140만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피난민이 몰려 있는 라파에 대규모 공세를 가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말려 왔다.

/연합뉴스



무료 식량 배급에 몰려든 가자 주민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에서 주민들이 무료 음식을 받기 위해 몰려 있다.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이어지면서 적잖은 가자지구 주민이 기아 위험에 처해 있다. /연합뉴스

SAUDI 사우디, AI에 54조원 투자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과 AI스타트업 지원...자체 업체 설립도 고려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약 400억 달러(약 53조58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우디의 이번 계획을 잘 아는 인사 3명은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PIF)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탈(VC) 회사 중 하나로 꼽히는 앤드리스 호로위츠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인류의 삶과 일자리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AI 기술 분야에 글로벌 투자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획이 성사되면 사우디는 AI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투자자가 되며 단숨에 'AI 큰손'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NYT는 경제를 다변화하고, 지정학적으로 영향력을 키우려는 사우디의 최근 노력과 맞닿아 있는 이번 행보는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국제 비즈니스의 강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중동 맹주의 야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사우디 정부는 총자산이 무려 9천억달러(약 1205조원)인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사우디 PIF 관계자들은 최근 논의에서 400억 달러의 AI 펀드가 어떻게 운용될지와 이미 AI 분야의 적극적 투자사인 앤드리스 호로위츠가 펀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가 설정한 400억 달러라는 액수는 미국 VC 업체들이 조성하는 일반적인 금액을 가뿐히 넘어서는 것이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돈을 투자한 회사는 오랜 기간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투자사 역할을 해온 일본의 소프트뱅크 정도에 불과하다고 NYT는 설명했다.

사우디 측은 반도체 제조업체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관련 스타트업 다수를 지원하는 방안은 물론 자체적인 AI 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또한, 친구 사이인 앤드리스 호로위츠의 공동설립자 벤 호로위츠와 야시르 알-루마얀 PIF 총재는 앤드리스 호로위츠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사무실을 개소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 중 1명은 귀띔했다. /연합뉴스

이변은 없다

바이든·트럼프, 5개주 경선 승리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미 후보직을 거머쥔 조 바이든 대통령(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이 19일(현지시간) 진행된 각 당의 주별 경선에서도 이변 없이 승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 애리조나, 일리노이, 캔자스 4개 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압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오하이오, 애리조나, 일리노이, 캔자스, 플로리다 5개 주에서 개최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큰 차이로 이겼다.

플로리다의 경우 이 주의 민주당이 작년 11월 경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만 등록해 이날 경선을 치르지 않았다. 플로리다주 법은 정당이 후보 한명의 이름만 제출하면 경선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절차 없이 플로리다에 배정된 대의원을 전부 가져가게 된다.

플로리다 공화당 경선에서는 이미 사퇴한 후보들의 이름도 투표용지에 올랐는데 99% 개표 기준으로 현재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샌티스가 고작 4%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81%)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14%)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플로리다 주민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표를 행사했는데 그는 팜비치의 투표소에서 기자들에게 "난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세계 화석연료 기업 '기후위기 낙제'

1~25위 '파리협정' 부합 안돼

전 세계 주요 화석연료 기업 모두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카본 트랙커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전 세계 25대 화석연료 상장 기업들의 기후 위기 대응 상황을 평가한 결과, 1.5도인 파리협정의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은 없었다고 밝혔다.

카본 트랙커는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계획, 배출가스 감축 목표 등을 평가해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인 A등급부터 최하위 H등급까지 기업들을 분류했다.

그 결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영국의 BP마저도 D등급에 불과했다고 카본 트랙커는 말했다.

카본 트랙커는 미국 코코 필립스가 최하위 H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사우디 아람코와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 미국의 엑손모빌은 G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카본 트랙커는 모든 주요 화석연료 기업들이 가까운 미래에 생산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장기적으로는 BP만이 장기적으로 생산량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렐솔과 에퀴노르, 셸은 현재 수준의 생산량 유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카본 트랙커는 부연했다.

카본 트랙커의 화석연료 분석가인 미브 오코너는 전 세계 기업들이 파리협정이 정한 목표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신속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약속을 내놓았지만, 불행히도 이 약속을 지킬 것 같은 기업은 없어 보인다고 개탄했다.

사우디 아람코 최고경영자(CEO)인 아민 나세르는 이번 주에 석유와 천연가스의 점진적인 퇴출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수요예측을 반영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P도 지난해 탄소 배출량 목표를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20~30% 감축할 것이라고 밝혀 이전에 제시했던 25~40% 감축 목표에서 후퇴했다.

지난 2016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지는 국제적인 합의안으로, 평균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 Card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임시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지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빛고을로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